

트럼프 “선 넘어서는 안된다” 北에 강력 경고

“美대통령과 특별한 관계 무효화 하고 싶지 않을 것 재선 가도 영향 좌시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식의 강력 경고를 내놨다.

북한이 전날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으로 불리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데 대한 반응인 셈이다. 재선 가도에 여파를 가져올 수 있는 대미 압박 행보를 두고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

돼 북미 간 긴장이 계속해서 치솟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김정은은 너무 영리하고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면서 김 위원장이 잃을 것에 대해 “사실상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그는 미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내년) 11월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덧붙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는 싱가포르에서 나와 강력한 비핵화 합의에 서명했다”면서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 하에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안에 통일돼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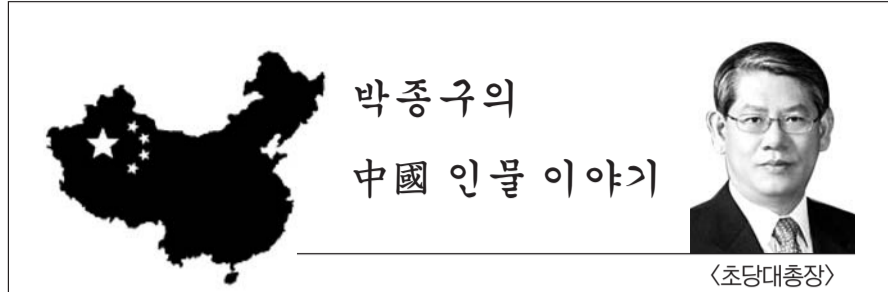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북한이 전 날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으로 불리는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크게 끌어올린 가운데 북한의 압박행보를 계속해서 인내할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대북외교 차적으로 내세워온 만큼 북한의 대미 압박 행보가 미국 대선에 여파를 미칠 정도로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강력 경고가 담긴 셈이다. 언제나 언급하던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는 트윗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직설적 화법 대신 우회적 표현을 쓰는 방식을 통해 판을 엮지는 않으려는 모습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대응에 공조하고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북한의 경고에 대응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는 발언으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선택을 제시하라며 남북은 연말시한에 근접하자 점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우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10〉 부필

부필(富弼, 1004-1083)의 자는 언국(彦國)으로 낙양 출신이다. 북송 인종, 영종, 신종 때의 명재상이다. 일찍이 범중엄이 그를 보고 “제왕을 보좌할 인재다”라고 칭찬했다.

인종 8년(1030) 무재(茂才)로 천거되어 장락감승, 직접현원, 지간원 등의 관직을 제수받았다. 경력 2년(1042) 지제고(知制誥)가 되어 거란에 사신으로 가 세폐를 늘리는 조건으로 토지 할양을 수용하지 않았다. 요나라가 국경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관남(關南)의 땅을 요구하였다. 재상 여이간이 그를 사신으로 추천하자 입조하여 “군주는 신하의 치욕을 염려해야 하고, 신하는 감히 목숨을 아끼거나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기꺼이 사신으로 갔

후에 상과 벌을 내려야 공과 신이 제대로 서게 됩니다.”

재상인 안수가 범중엄에게 딸의 혼처를 알아봐 달라하자 범중엄이 말하기를 “따님을 만일 관리에게 시집보내고 싶어 하신다면 나는 달리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나라에서 최고의 선비를 구하신다면 부필만 한 이가 없습니다.” 안수는 부필을 한번 보고는 크게 마음에 들어 즉시 혼사를 결정했다.

서하와 전쟁이 벌어지자 상서(上書)가 많이 들어왔다. 처음 조정은 상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부필은 “지제고 두명을 선발해 관리 및 백성들의 상서를 검토해 채택할 만한 것이 있으면 시행토록 하십시오”라고 간하였다. 또한 재상이 추밀원을 같이 지휘하도록 청했다. 이에 인종이 말하기를 “군사와 국정은 모두 마땅히 중서성에

핀란드 34세 여성총리 탄생 지구촌 현역 최연소 기록

핀란드에서 34세의 최연소 현역 총리가 탄생할 예정이라고 AP, AFP통신 등 외신이 8일(현지 시간) 전했다.

안티 린네 총리가 최근 사임함에 따라 핀란드 제1당인 사회민주당(사민당)은 이날 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교통부 장관인 산나 마린(34)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선출했다. 투표에서 마린은 안티 린네(37) 사민당 교섭단체 대표와 32 대 29로 접전을 벌인 끝에 승리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16년 만에 제1당 자리를 되찾은 사민당은 신임 총리직을 선임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 이번에 여성 총리가 취임하게 되면 이는 세 번째로, 마린은 최연소를 기록하게 된다.

핀란드 일간지 헬싱킨 사노맛 등 현지 언론들은 마린이 전 세계에서 최연소 현역 총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의 알렉세이 곤차루크(35) 총리보다 젊다.

마린은 이날 나이와 관련한 질문은 피한 채 “우리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내 나이와 젠더(gender-성)에 대해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내가 정치에 입문한 이유와 우리가 유권자의 신뢰를 얻었던 것들을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사민당에서 부의장을 맡은 마린은 2015년부터 의원으로 일했으며 이후 교통·커뮤니케이션 장관으로 재직해 왔다. 그는 27세 때 탐페레 시의회를 이끌면서부터 핀란드 정치계에서 급부상했다. /연합뉴스



홍콩 80만명 다시 거리로 지난 8일 오후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열린 세계 인권의 날 집회에 참가한 홍콩 시민들이 홍콩도 심 센트럴을 향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아베 지지율 50% 아래로 추락...“벚꽃파문 설명 수긍 못해”

전달보다 5.2% 포인트 하락 차기총리 이시바 1위로 꼽아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TBS가 중심이 된 일본 민영 방송사 네트워크 JNN이 7~8일 일본 내 18세 이상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전월 조사 때보다 5.2% 포인트 하락한 49.1%였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 포인트 상승해 47.7%가 됐다.

작년 10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를 도입한 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0% 미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JNN은 전했다.

지지를 하락에는 아베 정권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벚꽃을 보는 모임을 매우 자의적으로 운용했다는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67%는 벚꽃을 보는 모임이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고 이 행사에 관한 아베 총리의 해명에 수

긍할 수 없다는 반응은 72%에 달했다. 58%는 벚꽃을 보는 모임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총리 후보로는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하기 직전에 총재 자리를 두고 아베 총리와 경쟁했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주목받고 있다.

차기 자민당 총재로 누가 적합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4%가 이시바 전 간사장을 택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JNN 조사에서 3개월 연속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 1위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북송 인·영·신종대 명재상

다. 범중엄과 함께 경력신정(慶曆新政)을 추진했으나 보수세력의 반발로 1년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1044년 요나라가 출병해 서하와 함께 태인족을 도벌하고자 하였다. 인종은 요와 서하가 모의해 일을 꾸민 것으로 의심하였다. 황제께서 의심하면 그들의 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고 송군의 출병을 반대하였다. 하삭(河朔)에 홍수가 발생해 많은 백성이 어려움에 빠졌다. 정부의 양식을 지원하고 십여만 채의 거처를 마련해 유민들을 각 지역에 수용하였다. 다음해 가을 추수 때가 되자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모두 50여만명이나 되었다. 또한 청주에서 군의 전력을 강화해 “청주의 병사는 강하다”는 말을 들었다. 왕척이 반란을 일으키자 제주의 금병(禁兵)이 이에 호응하려 하였다. 은밀히 제주를 공격해 반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 1058년 재상이 되어 불변부당하게 정사를 처리했다. “백관이 자신의 소임을 다해 천하가 무사하였다”는 평을 들었다. 1061년 모친상을 당해 재상직에서 물러났으나 1063년 영종이 즉위하자 재차 재상에 발탁되었다. 1067년 신종이 즉위하자 무령군절도사를 제수하고 정국공에 봉하였다. 신종이 그에게 치국의 도를 묻자 답하기를 “군주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선악을 구분한

서 처리하여야 한다.” 이로서 재상이 추밀사를 겸하게 되었다.

왕안석이 참지정사가 되어 신법을 시행했다. 그는 신법을 싫어해 병을 핑계로 물러나기를 청했다. 신종이 그를 만나 물기를 “누가 경을 대신해 재상으로 삼을만 하오?” 문언박을 추천하자 신종이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다가 “왕안석이 어떻소?” 부필 또한 답을 하지 않았다. 희녕 2년(1069) 8월 재상직에서 물러나 무령군절도사로 임명되었다.

청묘법(靑苗法)이 시행되자 말하기를 “이 법이 시행되면 재정은 확보될지 모르나 민심이 떠날 것이다. 돈을 빌리 기 원하는 자는 모두 빈민일 것이다. 대역 후회수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청묘법은 유지할 수 없다.” 제거상황을 조제가 부필이 신법의 시행을 가로막는다고 고백했다. 좌복사판여주로 옮기라는 명을 받자 청하기를 “신법은 신이 잘 알지 못하므로 지방관인이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물러나 낙양에 귀향해 병을 요양하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1083년 낙양에서 80세로 세상을 떠났다. 유주(遺奏)를 작성해 조정에 올렸다. 신종이 상주문을 보고 애통해 하며 3일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다. 태위로 추증하고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신종을 뒤이은 철종은 신종의 사당에 배향하였다.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	---	---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낮춰주는 815대출
- 3~4세 아동 5세 이상 저소득층 유아돌봄기금
- 65세 이상 초장년층 노인층을 위한 희망연세연금
- 3~4세 아동 등 고금리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무이자 대출
- 3~4세 아동 5세 이상 저소득층 유아돌봄기금
- 65세 이상 초장년층 노인층을 위한 희망연세연금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